

자영업자 대출제한 신용위기 우려

경기침체와 소득절벽에 직면한 자영업자들의 '신용위기' 우려감이 고조되면서 은행권의 자영업자대출 죄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극심한 출혈경쟁 등으로 매출 부진에 허덕이는 영세자영업자의 급격한 대출 부실화를 막기 위해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말부터 자체적으로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금융당국도 그간 규제에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대출에 대한 총량 관리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대출 증가 억제에 고삐를 질 방침이어서 올해 은행권의 자영업자대출 심사는 더욱 간간해질 전망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지난 15일 금융위원회가 은행권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여신심사 모형을 구축하는 내용이 담긴 '자영업자 지원 및 대출관리 강화 계획'이 발표된 이후 정부 방침의 구체적인 내용 파악에 분주한 모습이다.

부실화 막기위해 심사 간간해진다 금융권, 총량 관리·모니터링 강화

금융위가 내놓은 자영업자대출 관리 방안의 주요 골자는 은행들이 대출조건을 까다롭게 해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창업을 막자는 것이다.

앞으로 은행들은 매출액이나 연체 이력 외에도 자영업자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이 어디에 어떤 가게를 열고 있는지 살피고 나서 대출해줘야 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만드는 과밀업종, 지역 선정 기준 등을 참고해 과밀지역 창업자에게는 가산금리를 매기거나 대출한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조만간 금융당국으로부터 자영업자대출 여신심사 모형과 관련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이 내려올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맞춰 내부적인 심사모형을 마련해 이르면 올 상반기에는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자영업자대출에 대한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개별 차주의 상환능력이나 사업 타당성 등 내부적인 여신심사 기준을 강화한 상태"라며 "이번 정책적 조치로 과밀업종이나 지역에 따라 대출이 제한되거나 대출 한도와 금리에서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자영업자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내수침체와 과당경쟁으로 자영업자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대출금리 인상과 경기침체와 맞물려 자영업자대출의 급격한 부실이 우리 경제에 뇌관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자영업자대출은 명목상 중소기업대출로 분류되지만 자영업자 모두 개인이기 때문에 사실상 가계가 상환해야 할 빚이다.

기준에 발린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에 더해 창업을 위해 받은 대출까지 짊어진 이들의 소득 감소와 폐업은 곧 가계대출 부실로 전이될 공산이 크다.

소상공인단체 관계자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증대 대책을 마련해 이들의 채무상환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국내 시중금리가 본격적인 오름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은행권은 물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자영업자대출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LX공사 전북본부는 25일 전주연탄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LX공사 전북본부-전주연탄은행 '맞손'

LX공사 전북본부는 25일 전주연탄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외계층 이웃을 위한 '사랑의 설맞이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LX전북본부는 전주연탄은행에서 추진하는 연탄 나눔 및 각종 나눔 사업들을 후원할 예정이며, 지난 달에 이어 전주연탄은행에 성금 50만 원을 기탁했다.

업무협약 후에는 LX전북본부 임직원

들이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일대의 소외계층 가정을 방문하며 연탄 800장을 배달했다.

송영준 전북본부장은 "연탄 나눔을 통해 태평동 이웃 주민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된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늘어난 체중, 저지방 요구르트로 관리하세요

농촌진흥청은 명절 연휴 뒤 늘어난 체중으로 고민하는 이들을 위해 한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저지방 요구르트' 제조 활용법을 소개했다.

요구르트의 유청단백질 분해로 생성되는 기능성 펩타이드와 칼슘은 우리 몸의 체지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국제비만저널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다이어트 식단에 저지방 요구르트를 하루 3번 추가한 경우, 1번 추가했을 때보다 체중 감소 효과가 약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요구르트(100g당 칼슘함량 150mg)처럼 고칼슘 식품을 먹으면 저지방 식품을 섭취할 때보다 한

농진청, '저지방 요구르트' 제조 활용법 소개

해 4kg의 체중 감량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요구르트는 우유를 유산균으로 발효시켜 만들었기 때문에 우유와 마찬가지로 단백질, 칼슘, 비타민 B 등이 풍부하다. 또한,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가 들어있어 장내 유산균 증식과 원활한 배변활동을 돕는다.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은 일반 우유 대신 저지방 우유를 넣는 것만으로 가정에서 손쉽게 '저지방 요구르트'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저지방 우유 11에 액상 요구르트 1병(80ml~200ml)을 넣고 충분히 섞은 뒤 요구르트 제조기에서 6시간~8시간 배양하면 된다. 이때 저지방 우유는 고칼슘이 아닌 것을 쓰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만든 저지방 요구르트의 칼로리는 100ml당 40kcal~60kcal 정도로 송편 1개 수준이다. 150ml 기준 하루 3회씩, 식후에 먹는 것이 좋다.

남은 요구르트는 면포로 짰 뒤 유통을 빼면서 24시간~48시간 냉장보관하면 '요구르트 치즈'로 활용

할 수 있다. 빵에 곁들이거나 샌드위치로 활용하면 된다.

요구르트의 단맛을 원한다면 설탕 대신 시판 '포라도올리고당'을 넣으면 장내 비피더스를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어린이 간식 용으로는 과일이나 견과류를 넣으면 안심맞춤이다.

농촌진흥청 축산물이용과 유지연농업연구사는 "요구르트는 칼로리 높고 기름진 음식 섭취로 체중이 늘는 명절 뿐 아니라 평소에도 건강에 탁월한 간식"이라며 "이번 '요구르트와 치즈를 만드는 법' 소개로 우유 소비 촉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북은행, 남원시에 선물꾸러미 100상자 전달

전북은행은 25일 민족의 대명절 설을 맞아 남원시에 '설맞이 이웃사랑 선물꾸러미' 100상자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전북은행 이정영 부행장, 김병조 익산지역금융센터장, 소민호 남원지점장, 이환주 남원시장이 참석했다.

전북은행은 소외계층 이웃들이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라면, 참치, 식용유, 간장, 당면,

김, 캔디, 차약, 부침가루 등 생필품 9종을 직접 박스에 포장하여 선물꾸러미를 마련했다.

이정영 부행장은 "설날을 맞아 준비한 선물꾸러미가 남원시 이웃들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명절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진정성을 전하는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중기중앙회 전북본부, 은누리상품권 기탁

중소기업중앙회 전북본부와 (재)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은 25일 전북도청에서 박병도 전북지역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설을 맞아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등 8개 시설에 1,000만원(은누리상품권)의 기부금을 전하여 소외된 이웃과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이번 사랑나눔활동은 전북지역에 뿌리내리고 있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을 통한 수익 중 일부를

복지증진을 위해 기부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지역' 간 상생의 모델이 되고 있으며, 특히 전통시장 활력 회복을 위해 은누리상품권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어 지역경제와 내수 진작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현준 전북본부장은 "중소기업인의 작은 정성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사랑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북중기청,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지원

사업화지원기업 참여 필수

전북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간 수평적 협력을 통해 공동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병행하는 신개념의 글로벌 시장 지향형 기술개발사업인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기존 기술개발사업과는 달리 기술개발 과정에 수출, 마케팅, 디자인 등을 담당하는 사업화지원기업이 필수적으로 참여하여 시장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혁신형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의 주체가 되고,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는 중소기업과 사업화 전략을 연구하는 기업 등 3개 이상의 기업이 네트워크를 구성해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수

행하게 된다. 이 사업은 사전기획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기획지원과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R&D지원으로 구성된다.

네트워크 기획지원은 혁신형 중소기업이 제시한 우수 아이디어를 고도화해 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6개월 동안 기술코디네이터 등 기획운영기관의 도움을 받아 협력파트너 매칭, 사전특허분석, 기술타당성, 사업성평가, 기술개발 전략수립을 지원한다.

이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월 22일까지 온라인 시스템(www.smtch.go.kr)을 통해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제품성능기술과(063-210-6452)로 문의하면 된다.

/인재용 기자

강태호 전북농협본부장, 부안 AI거점소독시설 방문

전북농협 강태호 본부장은 25일 AI 거점소독장소인 부안군 AI방역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해 24시간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방역초소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전북농협은 지난해 12월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올라감에 따라 지역본부, 시군지부를 포함한 관련 사업장의

AI방역대책 상황실을 주말과 휴일을 포함한 24시간 근무체제로 전환해 가동 중이다.

또한 방역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집중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규모 가금농가에 연락하여 소독확인도 함께 농장의 예로사항, 특이사항 등을 청취했다.

/인재용 기자

즐거운 설맞이 장수 농·특산물과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장수물 MALL JANGSU MALL

www.장수물.com

NAVER 장수군청 검색